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달 29일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622억 2500만원의 일반회계에 대해 3억 6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된 324억 5700만원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한수 의장은 “농어촌 인삼이 본격적으로 비배지는 요즘 농기계 및 해양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더욱더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이한수 의장은 “여행객들의 관심이 청정지역인 부안 변산반도를 향하고 있다”며 “관광지 주변 환경과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첫술 바꿔준 Day’ 행사 정읍시보건소, 6·9·12월

정읍시보건소가 1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1층에서 첫술을 가져오면 새 첫술로 교환해주는 ‘첫술 바꿔준 Day’ 행사를 가졌다.

보건소가 시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6·9·12월을 첫술 바꾸는 달로 정하고 시민 구강 건강지킴이 역할에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는 시민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과 구강 건강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 중인 첫술을 가져와서 새 첫술로 교환할 수 있고 올바른 첫술질 방법, 치실과 치간칫솔 등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교육·치아 모형을 이용한 실습·구강 건강 상담을 무료로 받았다.

보건소를 찾은 한 시민은 “보건소에서 이런 행사로 첫술을 바꿔주니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각시설 공론화로 해결

고창군·반대대책위, 최종 합의... 숙의 민주주의의 새지평 “쓰레기 감량정책 등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여건 조성”

고창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약칭-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1일 오전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공론화협의회의 위원, 군수, 군의회의장,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결과 설명과 합의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 온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 되면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최초 공론화 모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던 중 같은 해 1월 18일 소각시설 사업 인근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소각시설 인근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군청 앞과 아산면 소재지, 사업소 입구에서 릴레이 시위와 5차례의 반대 집회를 가졌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7월 고창군과 반대대책위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에 대한 교육을 마친 양측 실무진과 갈등 전문가가 포함된 ‘공론화 준비 실무협의회’가 구성됐고 주제 선정과 공론화 기간 공사종류 등 사전 준비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2일 공식출발한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는 11월15일 까지 45일간 진행됐다. 협의회 위원은 갈등전문가 3인과 군민대표, 아산지역 주민대표, 주변지역 주민대표 각각 2명씩, 고창군수를 위임한 환경시설사업소장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

다. 소각시설 건설공사는 공론화 회의 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전면 중지됐다.

협의회는 최장 7시간의 릴레이 회의를 갖는 등 8차례의 회의를 가지면서 잠정 합의서를 도출해왔다. 이후 보완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합의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공론화 합의의 주요내용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15년간 운영 ▲환경영향 방지시설 설비 보완과 환경영향 조사 실시(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 의견 반영) ▲배출가스 TMS(원격감시 시스템) 데이터 실시간 공개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군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 여건 조성 등이다. 이번 최종합의는 다수 아산면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겪고 있던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고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군민이 참여하는 선진화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원순환 실천마을 확대 등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각시설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시공을 통해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있게 직영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갈등으로 인해 반목과 질타가 이어진 것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진섭 시장과 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정읍시 “시민과의 약속 꼭 지킨다”

처리 완료 38건·추진 중 30건 등 현장 목소리 시정 반영

유진섭 시장이 올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을 점검하며 고충 처리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 시장과 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점검한 결과 주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건설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이중 소규모 도로보수와 하수구 정비,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 38건에 대해 이미 처리를 완료해 시민 만족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도로 개설과 확장, 소화천 정비, 체

육시설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30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

또 소방도로 개설과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많은 예산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61건의 민원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 추진이 불가한 26건의 건의 사항과 타 기관으로 이첩한 건의 사항 5건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에게 피드백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고 있다.

시는 제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에게 통보하고 이후에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격식과 형식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주제로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예산 확보 중앙부처 총행무진

권익현 부안군수가 국가예산 확보 및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8일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1일 재차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 행정을 전개했다.

권익현 군수는 각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 심의가 시작되는 이달 초순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반영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관리관을 만나 부안해 양경철서 개청에 따른 합정 전용부두 확보를 위한 격포항 확장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여타면제 추진을 건의한 데 이어 예산실로 이동해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을 찾아 부안군을 국산밀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산밀산업 허브 구축 지원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또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정영훈 과장을 만나 체육활동과 로컬푸드 결합된 부안떡거리힐링센터 건립 사업 선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올해 부처의 예산 편성기조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 검진받고 결핵 예방해야”

가족·동거인 철저한 검진 권고

정읍시가 결핵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또는 동거인에 대해 철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접촉자 검진을 받으면 미검진자에 비해 약 60%의 결핵 예방효과가 있다고 확인됐다. 또 잠복 결핵 감염치료를 완료하면 약 74% 결핵 발생이 감소하고, 가족

접촉자 미검진자는 잠복 결핵 감염치료자에 비해 결핵 발생위험이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결핵 환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결핵은 기침과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가족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약 17배가 높은 고위험군이다. 이 때문에 결핵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 및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2주 이상 기침과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 결핵 검진(흉부 엑스선 검사, 객담검사)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전체 결핵 신환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어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핵 검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정읍시보건소 만성병관리실(☎063-539-6129/60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